

황무지에서 피워낸 고려인의 삶과 문화

최근 개관한 광주 월곡 고려인문화관 '결' 가보니

'이주와 정착', '항일정신과 문화운동' 관련자료 전시
고려인 1·2세대 작가 육필희곡 등 국가지정기록물도

"강제이주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남은 건 절망뿐. 주동일은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맨발로 피 흘리며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섰다. 소련 정부의 거짓과 위선은 그동안 쌓아온 주동일의 신념을 송두리째 뒤엎었다. 남편의 죽음과 강제이주를 체험한 주동일에게 스탈린 체제는 거짓으로 위장한 가혹한 압제체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독립운동가이자 고려인 한글 교육에 헌신했던 리상희·주동일 부부 이야기는 감동을 준다. 고려인문화관에 '선구자의 가슴에 흐르는 불멸의 사랑 노래'라는 주제로 마련된 전시실. 두 부부가 조국의 독립과 고려인들을 위해 모국어 교육에 헌신했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국가의 존재 의미와 국가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되묻는다.

최근 개관한 광주 '월곡 고려인문화관 결' (광산구 산정공원로50번길 29). 이곳은 고려인의 강제이주와 항일운동 역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고려인들이 구소련 지역에서 남긴 다양한 자료와 컬렉션은 황무지에서 피워낸 민족혼을 상징한다.

문화관은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한 터라 다소 번잡한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나 초록색 건물이 주는 산뜻함은 주변의 풍경을 편안하면서도 밝게 물들인다.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겨레의 얼을 잊지 않았던 고려인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곳은 (사)고려인마을이 광산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당초 올해 초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의 여파로 개관식이 미뤄져오다가 지난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 맞춰 문을 열었다. 문화관이 자리한 월곡동은 고려인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거주하는,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광주 속 지구촌'이다.

문화관 관장은 지난 1991년 광주일보가 카자흐스탄에 세운 한글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한 김병학 고려인 연구가. 그는 "문화관은 강제 이주라는 아픈 역사 속에서도 민족혼을 피워낸 고려인의 삶과 역사를 담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다양한 스토리와 콘텐츠가 축적된 융합의 플랫폼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입구에서 만나는 것은 이색적인 조형물이다. 고려인들이 1923년 연해주 우스리스크에 세운 '고려독립선언기념문'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정문에 부착돼 있다. 3·1만 세운동 4주년을 맞아 현지 고려인들이 세운 건물로,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던 고려인 선조들의 열이 배어 있다. 삼각형의 지붕에 걸린 태극기에선 고려인들의 긍지와 자부심, 반드시 조국의 독립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결기가 느껴진다.

문화관은 역사유물전시관 '숨결'과 주민소통방 '금결'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가 조상들의 항일정신을 대변한다면 후자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만남과 어우러짐을 뜻한다.

1층 전시실은 '이주와 정착', '항일운동과 문화운동', '강제 이주와 시련의 극복'을 주제로 꾸며져 있다. 눈에 띄는 사진은 당시 자발적으로 강제이주 열차를 탔던 보이찌크 교수와 5명의 이방인이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고려사범대학교 타민족교원 5명은 아끼던 제자들을 차마 버려둘 수 없어 자발적으로 열차에 올랐다.

그렇게 고려인들과 열차를 탄 이들은 사범대학장(유대인), 러시아어문학박사로 세계문학 및 문학원론을 강의했던 보이찌크 교수와 아내 러시아어 교수, 수학교수, 그리고 또 한 명의 교수였다. 마지막으로 함께 동승했던 러시아 처녀는 "나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준 백성은 고려인이다. 나도 당시들과 함께 가겠다"고 울먹이며 나섰다.

강제 이주와 정착에 관련된 자료들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다음의 글귀는 몽글한 감동을 준다.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된 고려인들이 마주한 땅은 온통 진펄과 갈밭과 소금밭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듬해 봄에 갈대를 베고 땅을 고르고 수로를 내어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벼씨를 뿌렸다. 어느 민족보다 농경에 우수했던 고려인들은 농사에 극히 비우호적인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를 푸른 옥토로 변모시켜 나갔다."

2층은 기획전시실과 국가지정기록물전시실, 특별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고려인의 역사에서



고려극장 창립 50주년을 맞아 무대에 올린 연극 '춘향전'.

일어난 주요 사건을 조망하는 자료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1931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워진 한국 최초 유일한 사범대학교였던 고려사범대학교 개교 90주년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이곳에는 진화론의 관점에서 생물종의 변화 역사를 다양한 삽화와 함께 제시하는 '생의 기원과 발전'이라는 책자 등이 비치돼 있다.

국가지정기록물전시실은 지난해 국가지정기록물 제13호로 등재된 고려인 모국어 문화예술기록물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고려인 1, 2세대 작가들이 생산한 희곡, 소설, 가요집, 육필원고 21권과 고려극장 80여 년 역사가 담긴 사진첩 2권 등 총 23권은 연구 가치와 소장 가치가 큰 유물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근 개관한 월곡 고려인문화관 '결'은 고려인의 강제이주와 항일 운동 역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강숙영 작 '어머니의 눈물'

강숙영 '어머니의 눈물' 송은주 '비움날'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수상...976점 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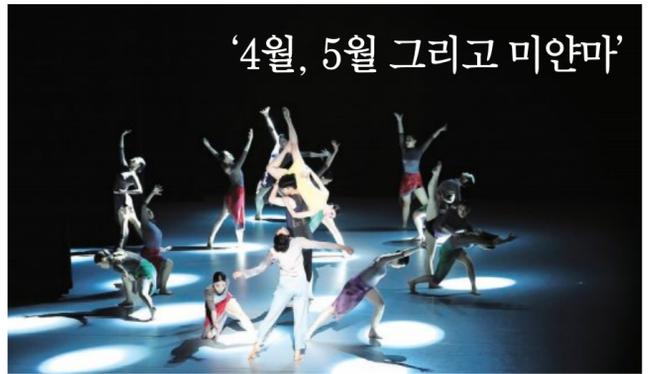
제 34회 광주시미술대전에서 강숙영 작가의 '어머니의 눈물' (서양화 부문)과 송은주 작가의 '비움' (한국화 부문)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976점이 입상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수공예진흥회가 주관한 이번 미술대전에는 15개 부문에서 1808점이 출품됐으며 이 중 대상 9점, 최우수상 10점, 우수상 42점, 특별상 7점, 장려상 45점, 특선 358점, 입선 505점 등 모두 976점이 입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200만원 수여됐으며 시상식은 지난 2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렸다. 또 입상작 전시회는 3일부터 6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부문별 입상자 명단 ◇대상 ▲서예(한문)=류재홍(김인후 선생 시) ▲조각=이은래(황해) ▲문인화=김영상(여름날 뒷뜰) ▲민화=최춘란(박분양행락도) ▲수채화=정윤주(들뜬 소녀들) ▲공예=이진욱(공간구상-202106) ▲서각=정당철(소치 목죽도)

◇최우수상 ▲서예(한문)=박남주(하일남정회신대) 임성규(또은 정몽주 선생 시) ▲한국화=윤성민(어떤 향기) ▲문인화=고광(매화) ▲조각=조장현(7살의 추억) ▲사진=김동혁(father) 문미연(기억중) 채종임(2021 IN fantasy) ▲서각=유재영(십장생) ▲민화=김성수(화훼도)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10일 ACC 예술극장

군부 쿠데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안마 국민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이 펼쳐진다.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는 오는 10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한 '4월, 5월 그리고 미안마'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최하는 '2021 ACC 예술대학 협력 프로그램'에 선정됐으며, 광주에서 발아한 '민주의 씨앗'이 무대를 넘어 미안마에 뿌리를 내리고 아시아 전역에 민주와 평화의 나무

가 자라길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발아 움트다', '만개 피어나다', '환류 흐르다' 등 세계의 장으로 구성된 공연은 현대무용·한국무용·발레·실용무용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역동적이고 화려한 무대로 꾸며지며, 51명의 무용수가 참여한다. 안무는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교수이자 광주현대무용단 예술감독인 임지형 감독이 맡았으며, 이숙영 교수, 조주현 연출가, 박상화 미디어아티스트가 함께한다. 무료관람. 문의 062-230-742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국민건강지수 1위 고흥!
여행환경 쾌적도 1위 고흥!

자연을 품고 정성을 담다

청정바다 고흥의 건강한 먹거리
맛과 향, 영양이 풍부한 고흥특산물!